

평등한교회 안전한일터

교회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내서



목차

교회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내서

- 005 01. 교회도 일터입니다
- 006 02. 성희롱인가요?
- 008 03. 발생 시 대응 규칙
· 피해자 · 주변인 · 행위자 · 관리자
- 012 04. 사건 해결 과정의 원칙과 절차
· 기본 원칙 · 사건 해결 절차 · Q&A
- 016 05.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10가지 수칙
- 018 06.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소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동역자 여러분께,

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을 상담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성희롱과 성폭력은 결코 드물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볍게 여겨지거나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교회의 명예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 아래 덮어버리려는 관행은 여전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특히 교회라는 일터에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목회자, 사역자, 간사, 유급 봉사자 등—이 겪는 현실에 주목합니다. 많은 이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한 채, 젠더폭력 앞에서도 오히려 ‘희생’과 ‘용서’를 강요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이 안내서가 이들의 일터를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그 어떤 조직보다 더욱 철저히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법과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이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보호할 것인가를 묻는 신앙의 윤리이며 실천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침묵을 강요받던 자리에서 함께 진실을 마주하며, 공동체로서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내서에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부터 사건 발생 시의 구체적 대응 절차, 피해자 보호의 원칙과 공동체의 책임까지 담았습니다. 각 교회가 이 내용을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현실에 맞게 적용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말이 안전하게 들릴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지닌 공동체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본 안내서는 한국여성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이 안내서를 구성해주신 매뉴얼 제작 TF팀(이은혜, 전수희, 최소영)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길 위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평등한 교회, 안전한 일터의 여정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2025년 7월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공동대표
방인성, 박유미

01 교회도 일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는 일상의 삶터로 파송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교회 역시 우리가 파송된 삶터이며, 그 안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생계와도 연결된 소중한 일터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이(목회자, 사역자, 행정 및 운영 직원 등)는 이 일터에서 각자의 소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교회라는 일터에서도 성차별과 성희롱(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문제가 쉽게 덮이거나 침묵을 강요당하는 일이 많아, 그 심각성이 더욱 큼니다. 성희롱은 성폭력의 한 형태이며, 특히 교회의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속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성희롱 피해는 피해자의 일상과 신앙을 함께 무너뜨릴 수 있으며 특히 교회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는 생계의 위협도 동반됩니다. 고용 불안, 보복성 조치, 경력 단절의 우려는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요인이 되며, 이러한 구조적 위험은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의 상담 통계에 따르면, 교회 여성노동자의 경우, 직위에 상관없이, 목회자든 교인이든 다양한 위치에 있는 이들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교회 내 구조와 문화 속에서 여성 노동자가 특별히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안전한 경계를 지키지 못한 결과이며, 성령 안에 하나된 지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성희롱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신앙의 언어로 이를 외면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대표하고 처리하는 이들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정의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담임목회자가 가해자인 경우, 교단의 처리 절차를 따라 공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 주체로서 성희롱 예방, 피해자 보호, 대응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갖고,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실천에 힘써야 합니다. 사건 처리의 책임은 피해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평등한 교회, 안전한 일터 매뉴얼〉은 “평안”한 공동체를 향한 출발점입니다. 이 매뉴얼이 교회에서 일하는 이들, 그리고 모든 교인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자의 현실에 맞춰 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소망합니다.

성희롱 인가요?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혹은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 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 **목회자와 직원 등 교회 내 고용 관계 안에서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 교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 **교인이 교회에 고용된 사람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모두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예방 교육, 고충 처리, 가해자 징계 등의 법적 의무를 갖습니다.

-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교회는 업무와 친밀한 관계의 경계가 모호한 특성이 있기에 모든 구성원이 성적 불쾌감 없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교단 차원의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원칙들

- 1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보다는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를 사회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2 **한 번의 행위도 성희롱입니다.**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아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3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같은 성별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 4 **신앙을 빌미로 한 성희롱은 더욱 심각합니다.**
기도, 상담, 축복, 권면 등 신앙적 행위를 빌미로 한 성희롱은 영적 권위를 악용한 것으로 더욱 큰 상처를 남깁니다.

교회 내 성희롱 사례

사례 1: 친밀감을 가장한 성희롱

담당 부서의 한 청년이 ‘전도사님 너무 좋아요’하며 어깨와 등을 계속 쓰다듬었어요.
새벽녘에는 ‘예쁘다’, ‘귀엽다’는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교육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칭찬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라며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해서
함께 사역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말했어요.

사례 2: 권위를 이용한 성희롱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교역자들이 다 모인
곳에서 담임목사님이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확대해보며 몸매에 대해
평가했어요. 팔뚝 살을 빼면
완벽하다고 말해 불쾌했습니다.
불쾌한 내색을 하니 ‘요새 젊은
사람들 무서워서 칭찬도 못한다’라며
농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례 3: 성별화된 돌봄노동 강요

장로님이 교회 사무실에 수시로 찾아와 꽃을 주며 교회 근처가 아닌
외곽의 식당에서 단들이 식사를 하자고 여러 번 제안하셨어요.
부담스럽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왜 성도랑 밥도 먹지
않느냐며 핀잔을 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운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강요처럼 느껴졌어요.
동료 목회자는 “네가 잘 거절하면 되지”. “동료 목회자들 사역에
피해주지마”라며 오히려 제가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사례 4: 상담을 빙자한 부적절한 질문

목사님이 상담해 주시겠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갑자기
‘이성 친구 사귀어 본 적 있느냐’,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 봤느냐’
같은 사생활 질문을 하셨어요. 불편해서 피하려고 했지만
멈추지 않으셨고, ‘모르면 가르쳐 줄게’라고 하셨어요. 상담이라
믿고 갔던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고 무서웠어요.

피해자라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희롱이 발생한 것 자체도, 해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도 피해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많은 여성 사역자가 피해를 겪고 나서 '내가 조심하지 못한 건 아닐까' 자책하거나, '교회에 피해를 줄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줄까', '사역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염려에 문제 제기를 망설입니다. 그러나 성희롱을 참고 견디는 것이 사역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신고, 고소, 도움 요청은 교회를 해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더욱 정의롭고 안전해지도록 만드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여성긴급전화 1366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1 당신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쾌하거나 불편한 언행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추후 피해를 막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어렵다면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편지 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책임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거절이 어려울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이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2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증거 수집)**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반복된다면 법적 대응이나 공동체적 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당시의 날짜, 시간, 장소, 상황, 느낀 점, 목격자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이메일, 메모, 녹취, 증인 진술이나 일기장, 지인에게 언급한 내용 등도 가능한 한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3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적극적 도움 요청)**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소속 교회의 관리자나 위원회, 외부 전문 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변인이라면,
(동료, 공동체 구성원)****1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피해자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면,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피해자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지지하는 태도로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로 인식해주세요**

성희롱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교회 일이니 조용히 넘어가자'는 분위기는 2차 피해를 낳고, 피해자의 고발을 문제 삼는 태도는 피해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3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건을 이야기하거나 행위자를 감싸는 말과 행동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선불리 화해 또는 중재를 강요하거나 행위자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며 단정하기보다, 당사자가 공정한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피해자의 조력자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후,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행위자라면,



1 즉시 중단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상대가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즉시 행위를 멈추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상대방의 위치와 상황에서 내 언행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3 조사와 절차에 성실히 응하세요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변에 소문을 내기보다는, 교회의 조사와 해결 절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관리자라면,

관리자는 교회 내 고용된 이들을 지휘·감독하며, 정책과 운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교회 구조에 따라 담임목사, 당회장, 운영위원장, 관련 위원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 신고를 받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신고 접수 및 안내)

피해자의 이야기를 판단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공감과 존중의 태도로 경청하세요.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가능한 대응 방법을 제시하여 피해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공정한 절차 진행)

사소한 일로 여기지 말고, 교회 내 규정이나 상위기관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기도나 설교 시에는 행위자나 특정인의 관점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비밀을 철저히 지키고, 피해자 보호 조치(공간 분리, 업무 조정, 상담 지원 등)를 신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3 사건 이후의 조치도 중요합니다(후속조치)

교회의 결의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세요. 사건 이후 정기적인 예방 교육과 문화 개선 활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자문을 받고, 해당 기관의 권고 사항을 공동체 차원에서 충실히 수용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04

사건 해결 과정의 원칙과 절차

기본 원칙

교회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 **피해자 관점 반영:** 피해자의 상황과 맥락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피해자의 말과 감정을 신뢰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사건이 제기되면 신속하게 조사하고,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 **비밀 보장과 안전한 절차:** 피해자 및 관련자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조사 및 논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예방 문화 확립:**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성평등한 교회 문화를 조성합니다.
- **회복 중심 접근:** 사건 해결은 단순한 징계나 분리로 끝나지 않으며, 공동체 전체가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가해자의 사과와 책임 인정을 전제로 공동체 교육과 상담을 병행합니다.

사건 해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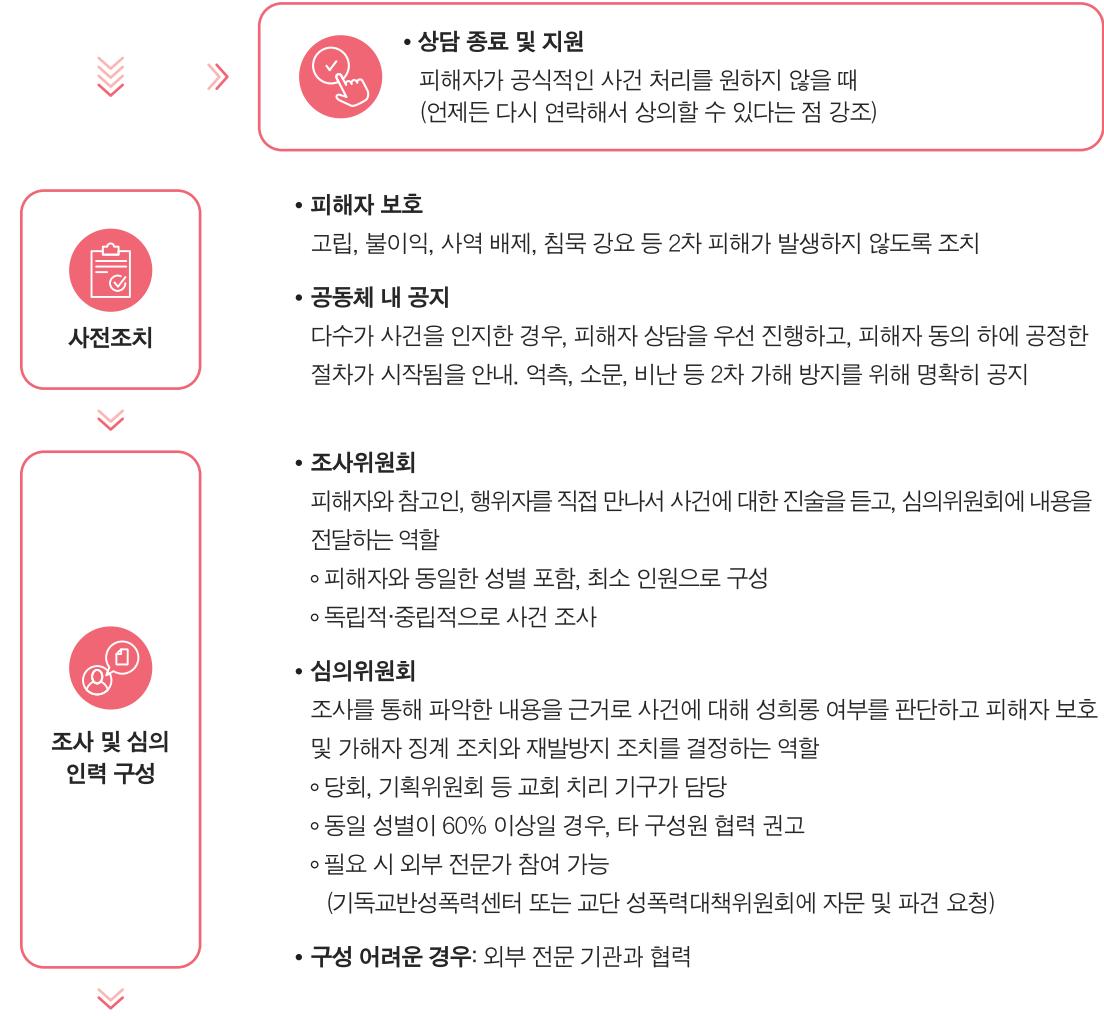
상담
및 신고접수

- **성희롱 사건 접수 전담 담당자 지정 필요**
 - 담당자는 신뢰도, 접근성, 성인지 감수성 및 상담 역량 갖춘 인물이어야 함
 -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및 제3자도 신고 가능 /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 가능해야 함(피해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공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조사를 강요해서는 안됨)

• 피해자 상담시

- 비밀 보호 원칙 철저히 준수해 피해자에게 안전함 보장
- 피해자에게 사건 개요* 듣기 / 적극적 경청
-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 피해자의 사건처리 의사 확인

*사건 개요: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 간략히 정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조사 시 확인필요, 초기 상담시에는 피해자의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파악하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 ¹우리 교회의 사건처리 절차 ²외부에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기관 정보 ³피해자 지원기관 정보





조사

• 기본 원칙

- 피해자 - 참고인 - 행위자 순으로 면담
- 객관적 자료 수집 필수
- 모든 조사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 녹취, 회의록 등의 기록으로 남기기

• 피해자 조사

-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된 공간에서 면담
- 사전 동의 하에 녹취 및 기록 진행
- 다음과 같은 정보 파악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관계 / 사건 발생 장소, 시간, 당시 상황, 목격자 여부 / 사건 이후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 /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대응 / 피해자의 대응에 대한 행위자의 반응 /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는지 / 피해사실을 보았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 원하는 사건 처리 방향이 있는지

• 참고인 조사

- 관련 진술을 통해 사건을 다각도로 파악
- 비밀 유지 서약서 확보로 2차 피해 방지

• 행위자 조사

- 사건 접수 사실을 알리고 성실한 진술 요청
- 소명을 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수용하고 근거확인

• 심의위원회

- 성희롱 여부 판단, 성희롱에 해당될 시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의 구체적 방안 의결,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수립
- 행위자가 담임목회자인 경우 심의결과를 상위기관(노회/연회)에 보내 처리요청

- 행위자 징계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 성평등 교육 및 조직 문화 점검 등 사후 관리 실시
-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 체계 마련



상의 및 조치



후속 조치

Q&A

Q1. 행위자가 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합니다. 사건에 관련된 모든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공정하게 판단하며, 행위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됨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허위 신고나 무고 주장이 있을 경우, 사실에 기반한 책임있는 설명과 증거 제시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부인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Q2. 피해자가 공식적인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의사와 감정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되,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병행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다루도록 노력하면서 성희롱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감정을 배려하면서도 적절한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05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10가지 수칙

각 교회와 공동체가 워크숍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생활 수칙을 함께 만들어 보세요.

- 1 공동체의 은혜와 헌신은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은혜’와 ‘사명’이라는 말로 문제를 덮거나 침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 2 외모, 나이, 성별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서로를 대합니다.**
사람을 외모나 나이, 성별로 평가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가 지닌 존엄함을 존중하며,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로 관계를 맺습니다.
- 3 상대의 몸과 경계를 존중합니다.**
격려나 친밀감을 표현할 때에도 먼저 상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거절의 표현은 존중되어야 하며,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동의에서 시작됩니다.
- 4 개인적인 만남이나 연락은 서로의 자유와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연락을 강요하지 않으며, 특히 위계가 있는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히 행동합니다.
- 5 사진 촬영과 공유는 동의와 허락을 먼저 구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상대의 동의 후에 촬영·공유하며, 친밀함을 이유로 권한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사생활은 사생활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 6 결혼, 연애, 성정체성, 가족사 등 민감한 이야기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묻거나 나누지 않습니다.**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소문이나, ‘중보기도’를 위해서도 개인의 동의가 없다면 공유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7 성별이나 나이에 따른 역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자니까”, “막내니까”라는 말 대신, 모든 역할을 평등과 존중의 시선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구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 8 위계나 직분에 따른 언어와 행동에 신중합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영향력도 커지는 만큼,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며, 말과 행동에서 공동체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 9 모든 공간에서 안전을 지향합니다.**
예배와 사역의 자리뿐 아니라, 단체 채팅방과 비공식 모임에서도 성적 농담이나 부적절한 자료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10 성희롱 예방과 대처는 모두의 책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대응 방법을 숙지하며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의 방식과 속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지지하고 행동합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소개

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2018년 한국사회에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며, 그동안 침묵 속에 가려졌던 교회 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 NGO단체입니다. 2018년 7월 개소 이후 2024년까지 교회 내 성폭력 사건 385건을 접수, 472명의 피해자와 함께하며 사건 상담·지원·동행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성폭력 생존자와 그 주변인이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 상담과 지원을 중심으로, 교회와 교단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① 피해자 상담 및 사건 지원

- 성폭력 사건 접수 및 상담
- 교회 내부 해결을 위한 소통, 공적 개입, 교회 내 재판 지원
- 심리 상담 및 법률(자문)지원과 전문 기관 연계

② 예방 교육 및 콘텐츠 개발

- 교회, 노회, 신학교, 기독교시민단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 진행
- 교회 특성을 반영한 성폭력 예방 커리큘럼 및 매뉴얼 개발

③ 정책 제안 및 구조 개선 활동

- 주요 교단 총회 성폭력 대응 실태 모니터링 및 개선 촉구 활동
-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제도적 변화 요구
- 성평등한 교회 문화 형성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연구 기획

교회성폭력 상담

☎ 상담전화 02-365-1994

✉ 상담메일 talktome@yourvoice.or.kr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왜 교회에 꼭 필요할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믿고 사랑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교회 역시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위계와 권위, 침묵과 관행 속에서 성희롱·성폭력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침묵과 용서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차별적인 젠더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강화시키는 잘못된 예방 교육으로 인해 도리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예방 교육은 단순한 도덕 교육이 아닙니다.

예방 교육은 사회적 상식과 인권, 성평등의 기준 위에서, 교회의 구조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적 교육이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회의 신뢰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천으로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에 교육 신청 방법

아래 이메일로 교육 신청을 문의해 주세요.
일정·대상·방식 협의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감사 매칭 및 교육 진행이 안내됩니다.

☎ 교육 문의 전화 02-364-1994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문의 이메일 yourvoice@yourvoice.or.kr

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침묵을 강요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회복을 지향하는 예배 공동체,
누구에게나 존엄과 안전이 보장되는 교회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교회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내서

발행일 2025년 6월 25일

발행처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발행인 방인성 박유미

구 성 매뉴얼TF팀

김예원 박소래 박신원 이은재 이은혜 전수희 최소영

후 원 한국여성재단

디자인 나눔과이음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주 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203호

이메일 yourvoice@yourvoice.or.kr

홈페이지 yourvoice.or.kr